

음악과 미술의 연계를 통한 대학 교양 수업 연구

오 유 진*

본 연구는 음악과 미술의 연계를 통한 대학 교양 과목을 계획하고 음악·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수업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음악·미술 교양수업에 사용될 실질적인 수업 설계 및 학습세안을 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세기적 새로운 대학 교양 과목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써 과목이나 계열 간 통합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근거로 음악·미술의 연계를 주요 교과로 삼았고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인문학의 분야 중 역사, 문학, 심리학, 미학의 네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학기 총 14차시 강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실제 강의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각 네 분야의 한 차시씩 수업 설계를 제시하였고 역사영역에 관한 한차시분의 학습세안을 작성하였다.

※ 주제어 : 음악, 미술, 대학 교양수업, 수업 설계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제한점

II. 음악과 미술의 연계를 통한 대학 교양 수업 설계

1. 연구방법
2. 강의 계획 수립
3. 영역별 수업 설계 및 학습세안

III. 요약 및 제언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형 인재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전문인을 요구한다. 이에 대학은 더 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의 배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학 교과도 현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교양 교육의 목적은 미래사회의 적응적 가치를 지니는 인간교육, 도덕교육, 창의성 교육의 실현이며, 이러한 교양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 교육의 강화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송유진, 2011). 또한, 교양 교육은 자칫 전공 교과와 전문 지식인으로써 치우치기 쉬운 편향된 가치관을 개선시키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 예술분야의 교육은 시청각을 이용한 미적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이 중심이 된 교육은 풍요로운 삶에 바탕을 제공한다.

현 초·중·고 교과에서 음악과 미술은 입시 위주의 교과 시수 확대와 통합교과 등의 명목으로 제대로 된 수업 시수를 할애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술분야 수업 시수의 축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심미적 경험과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축소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교과 중심의 학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배양해줄 교양교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 교양의 미래지향적인 교과목 개설에 관한 선행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성우, 최종덕, 2009; 박구용, 2012; 송유진, 2011; 윤주희, 2011; 최소희, 2002)

21세기 형 대학 교양수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라는 맥락에서 뜻을 같이 하는데, 예술의 영역 간 통합이나 다른 교과, 즉 인문학과와의 연계가 그 중심에 있다. 학습에 관한 제안들은 각 영역간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연계할 것을 당부하고 21세기형 교육의 핵심인 포괄적 사고와 창조적 인재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주장한다.(박지숙, 김태우, 2006; 오지향, 김선미, 2009; 장지원, 2012; 정진원, 2008)

‘교육 통합’이라는 명제는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해 왔고 이미 초등교육에서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과 간 공통주제나 지식 연계성을 가진 분야의 교수-학습 구성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지도 원리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또한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수업구성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정진원, 2008).

주지하다시피 예술 영역의 두 학문은 이미 수세기를 거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고 학문적 교류도 활발하다. 또한 음악과 미술의 교과 간 융합적인 측면의 연구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음악·미술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는 포괄적 시각의 통합교과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과, 좀 더 전문화된 시각으로 시대사조나 작품을 다룬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통합교과 교육 차원의 음악·미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고에서 쓰일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거나 수업 지도에 쓰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있다.(강지연, 2012; 김미령, 2012; 김민영, 2013; 김부남, 2003) 둘째, 좀 더 전문화된 연구들은 보통 음악을 중심으로 미술에 접근하거나 미술을 중심으로 음악을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고승민, 2011; 박현아, 2009; 최보람, 2011; 한수진, 2013) 한 작품이나 한 시대사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듯 초·중·고 음악·미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 교양에서 음악·미술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다룬 연구들은 초·중·고 과정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대학교양에 그대로 접목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교양 음악·미술과목은 이미 중등과정에서 다루어 졌던 한정된 교과 내용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지식과 기존 배경지식을 접목시킬 수 있는 형태, 즉 포괄적 예술을 다룰 수 있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음악·미술이 갖는 공통적 요소를 찾아 수업 설계와 학습세안을 제시할 것이다. 수업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인문학적 시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인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측면이 아니라 음악·미술이 갖는 공통적인 주제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주제영역을 정할 것이다. 이미 각각의 인문학 영역은 음악·미술에서 통합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교양에서 다루어질 수업내용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업구성방식으로 새로운 대학 교양 수업 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진 문화인으로 자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업방식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음악과 미술은 서양음악사와 서양미술사로 제한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초·중·고 교과에서 다루는 음악과 미술에서 서양음악사와 서양미술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양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국악이나 한국 미술은 제외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의의 수준과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떤 주제가 적절할지 시각차에 따른 상이점이 있다.

셋째, 음악과 미술이라는 광범위한 두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는 수업구성이라는 점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학문의 질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학에서 강의의 성격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16주 중 시험기간을 제외한 실제 수업 부분인 14주의 분량을 다루었다.

Ⅱ. 음악과 미술의 연계를 통한 대학 교양 수업 설계

본 연구에서 쓰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강의 계획을 수립한 뒤 영역별 수업 설계를 작성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영역별로 강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강의 목표와 방법을 설명하고 14차시 강의계획을 수립했으며 네 영역으로 조사된 수업 설계를 제시하였다.

1. 연구방법

1) 연구 주제 선정과 영역별 조사

음악과 미술의 두 교과를 하나의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미술 한 교과만 가지고도 건축, 회화, 조각, 사진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며 이것은 어떠한 주제의 어떠한 맥락이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수업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진다. 예술 교과 간의 연계는 이러한 주제 선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자칫 음악과 미술의 두 분야를 함께 수업한다는 것은 병렬 나열식이나 개념 정리식의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방대한 양의 두 교과를 모두 전하고자

하는 것도 매우 무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절히 수용하고자 수업 주제를 인문학과 연계로 통일감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인문학의 넓은 범위에 예술이 포함되며 예술은 인문학의 다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예술과 인문학은 적절한 테마를 선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대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러한 비인간화의 현실을 인문학과 예술에서 해답을 찾는 열망 또한 높아가는 때이다. 교육계의 연구 주제로 갈수록 학문간 융합이나 통합이 대두되는 것을 보면서 예술과 인문학의 적절한 수업 구성이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업의 주제는 학문적 접근과 정서적 측면의 자극을 포괄하는 수업 방식 선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인문학적 관점에 의한 주제선정을 위해 역사, 문학, 심리학, 미학 등 4가지 분야로 간추려 보았다.

역사는 서양음악사와 서양미술사라는 두 교과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역사적 기술이 두 예술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 구분으로 본다면 서양음악사와 서양미술사에서 다루는 시대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서양음악사가 주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 20세기 현대음악¹⁾으로 시대구분을 한다면 미술사에서는 고전(Classic)이라는 시대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역사적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역사와 관계된 수업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대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은 많은 예술 작품을 배출하였고 역사 안에서 배출된 예술 작품은 그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속 예술의 큰 맥락이며 일반 학생들에게 접근이 쉬운 르네상스, 바로크, 18세기-19세기, 20세기의 네 분야로 나누고, 예술적 가치를 가진 ‘혁명과 전쟁’이라는 사건을 수업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문학은 음악·미술 전반에 걸쳐 서로 교류하였다. 소설속의 인물은 음악과 미술작품 속에 주요 배경이 되었다. 괴테의 소설, 니체의 철학서, 단테의 희곡, 말라

1) 위와 같은 구분은 서양음악사를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라우트 서양음악사에서는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바로크나 고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시대적 흐름을 대변해 준다는 점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부분도 같은 시대로 묶는 단점 때문에 최근 들어 용어의 사용보다는 17세기, 18세기처럼 세기 구분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미술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특성상 르네상스, 바로크,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나누어 보았다.

르메의 시는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 <단테의 조각배>, 드뷔시의 전주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처럼 많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시는 음악의 예술가곡(Lied), 오페라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곡이 아름다운 독일의 시문학이 배경이었듯, 오페라가 발전한 배경에 극본이라는 장르가 있었다. 오페라는 음악, 문학, 무대, 의상, 무용 등 예술의 범위에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있었던 문학과 예술의 작품을 감상한다.

심리학은 음악과 미술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 연구를 토대로 음악치료, 미술치료라는 분야가 심리 치료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예술에서 보자면 심리학은 크게 두 부분, 예술가의 관점과 감상자의 관점의 시각차를 가져온다.²⁾ 수업의 내용은 이러한 시각차에 의한 작품과 작품해설,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리학과 연관 깊은 예술의 세계에 대한 연구이다.

미학은 미와 예술을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철학 분야 중 가장 음악과 미술이라는 교과에 적합한 개념이다. “미’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경험 내용을 서술하는”(박이문 외, 2010, p16)것으로 경험에 의해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 감정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을 감상하는 미의 개념을 고찰하여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문이다. 정서와 감성에 대한 추구는 문헌이 전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강조되고 있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미의 추구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업의 주제는 예술의 미학적 근거에 관한 배경지식을 설명하고, 미학적 논란에 관한 감상과 비평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강의 형태나 강의 내용과 혁신에 대한 연구(송유진, 2011, p. 152; 박승익, 2007)는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세미나식 수업방법의 모색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학문의 융합을 통한 세미나식 수업을 포함시켰다. 음악·미술은 시각·청각을 이용한 감상이 중요한 수업 방식이기에 감상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수업이다. 더욱이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감상의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획일적인 감상내용을 피하고 다양한 토론 내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과 더불어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법을 구성하였다. 매

2) 예술심리학(Winner, p.3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예술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첫째, 무엇이 예술가로 하여금 창조적 동기를 부여하는가? 둘째, 예술 창조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인지적 기제가 작용하는가? 라는 물음이 주도되어 왔고, 감상자에 대한 연구는 첫째, 무엇이 사람들에게 예술작품을 관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둘째,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형의 인지적 기술이 필요한가? 이다.

변 같은 방식의 토론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안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집중도를 높이는 수업이 될 것이다.

수업은 강의와 감상, 참여의 3단계 구성으로 음악·미술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강의를 통해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감상을 통해 시청각적 체험을 유도, 토론과 같은 참여수업으로 감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수업 진행 방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음악·미술 연계 교양수업의 목표와 강의 방법

다음은 음악·미술 연계 교양수업의 목표와 강의 방법에 관한 표이다.

<표 1> 음악·미술 연계 교양수업의 목표와 강의 방법

음악·미술 연계 교양수업의 목표	1. 음악·미술에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 2. 주제별 예술 작품에 대한 토론 및 감상평 제시 3. 작품 감상을 통한 예술 영역 관심 확대 4. 예술에 대한 가치관 확립
강의 방법	1. 강의 : 주제영역에 대한 음악·미술 개요, 배경지식에 관한 설명 2. 감상 : 주제영역에 대한 작품 감상,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작품에 관한 이해 3. 참여 : 강의와 감상을 배경으로 작품에 대해 토론, 팀원 간의 주제와 작품에 대한 감상 비평, 주제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참여수업 후 토론

음악·미술 연계 교과의 수업 목표는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더 나아가 감상자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길러질 것이며 그것이 전인적인 현대인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양의 역할에 부합된다.

교양수업의 강의방법은 참여에 의한 수업활동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참여수업은 세미나식 수업, 즉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우선 강의와 감상으로 주제와 작품의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한 뒤 팀별 세미나 과제를 선정한다. 감상 뒤 다양한 감상평이 존재하며 이것은 참여수업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단편적인 평이 아니라 인문학적 수업 내용을 포괄하는 참여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상을 통한 분야별 참여수업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예술적 지식 기반이 많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세미나식 수업을 이끈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인문 지식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시간에 주제에 따라 실제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시를 쓰고 동영상 제작하는 등의 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된다. 맹목적인 세미나식 수업을 강요하기보다는 각자 표현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단편적인 수업내용을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고르지 않은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교양강의에서 한 학기에 두 번 참여 시간을 실행해 본 결과 개인 간 실기능력의 큰 편차를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음 고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작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 교양강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수의 참여와, 참여로 인한 관심의 증대라는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강의 계획 수립

앞서 조사한 4가지 영역별 주제를 가지고 강의제목을 정해 보았다. 역사영역에 5차시, 나머지는 각각 3차시씩 총 14주에 해당하는 영역별 강의계획을 세웠다.

<표 2> 영역별 강의계획

차시	분야	영역	강의제목
1	토대	역사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예술 찾기
2			바로크, 바흐부터 벨라스케스까지
3			18c-19c 예술을 꽃피우다
4			20c 혁신과 모험의 시작
5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6	응용	문학	문학, 예술과 함께 하다
7			극을 완성하는 문학
8			빛의 혁명과 시의 예술
9		심리학	심리학, 예술을 말하다
10			예술과 치료, 작가의 정신세계
11			심리학으로 그림읽기, 음악듣기
12		미학	아름다움을 찾아서
13			미학과 평론
14			20c 예술사조의 미학

영역별 강의계획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분야로 토대와 응용으로 나누었다. 역사부분을 진행하는 것을 토대분야로 두고 나머지 문학, 심리학, 미학을 응용분야로 보았다. 토대가 되는 역사적 흐름을 첫 차시부터 네 번째 차시까지 순서대로 정하여 대략적인 시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작품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혁명과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한 차시 더 계획하였다. 음악·미술이 시대 변화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은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탄생 배경을 설명할 때 시대적 설명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역사를 첫 강의의 주제로 정하였다. 1차시부터 4차시는 되도록 순서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강의는 따로 순서를 정할 필요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역사 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주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각각의 강의 제목은 영역별 학문 중에 예술의 소재와 가장 친근한 것들로 구성하였고 음악·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고려되었다.

다음은 4가지 영역별 주제 중 각각의 수업내용에 관한 표이다.

<표 3> 강의 영역과 수업내용

영역	수업내용
역사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음악·미술의 주요 작품을 다룬다. 르네상스, 바로크, 18c-19c, 20c로 나누어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해왔지만 혁명과 전쟁처럼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역사적 사실은 없었다.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거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1·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러시아혁명 등 혁명과 전쟁에 관계된 역사를 설명하고, 이 사건들이 만들어 낸 음악작품과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문학과 음악·미술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학이 영향을 준 음악·미술 작품을 고찰한다. 고대부터 시는 노래의 가사로 사용되었다. 특히 19세기 독일의 리트(Lied), 연가곡, 20세기의 가곡들은 모두 시를 배경으로 작곡되었다. 오페라라는 장르는 문학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미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세기에는 상징주의 문학과 인상주의 미술이 인상주의 음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양한 사조의 배경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이해한다.
심리학	예술 심리학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견해를 살펴본다. 창작자와 감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예술에 대해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연관된 작품들을 조명한다. 색채로 알아볼 수 있는 심리학을 살펴보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태교

영역	수업내용
	음악으로 쓰이게 된 심리학적 배경을 조명한다. 음악과 미술은 이미 심리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이며 다양한 이론을 낳았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회화표현, 도상의 의미, 직접지각, 구성주의 등의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이 배경이 되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조성, 음고 관계, 선율의 이해, 음악의 정서적 반응 등의 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악과 미술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미학	고대 그리스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아름다움의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미학의 교육적 역할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때로는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다르게 비평하는 것도 미학의 본질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세기의 음악과 미술은 아름다움에 관한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아방가르드, 추상표현주의, 12음 기법, 플럭서스 등 기존의 '미'를 혼돈 시대사조를 설명한다. 이러한 철학사의 배경과 예술에 대한 추구를 설명하고 연관된 작품을 감상하며 각자의 미학관을 살펴본다.

<표 3>은 강의 영역별로 진행할 대략적인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각 영역별로 진행될 14차시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음악·미술과 각각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교양지식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려되었다.

3. 영역별 수업 설계 및 학습세안

다음은 대학교양 강의에서 다루어질 4가지 영역별 분류 내 한 차시씩의 수업 설계와 역사영역의 학습세안이다. 수업의 목적과 내용, 감상 작품과 교수법에 관한 제안이다. 수업시간에 다루어져야 할 각종 사건이나 사상, 학설과 작가 등 주안점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연관된 작품을 조사하였다. 학습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양수업의 강의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가지 주제로 길게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4>는 역사를 주제로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를 다룬 수업 설계이다.

<표 4> 역사를 주제로 한 수업 설계

강의주제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목적	혁명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음악과 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이 어떻게 배출되었는지 알아본다.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작품들을 감상하여 역사와 예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주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2주제: 1·2차 세계대전과 다다이즘, 파리와, 힌데미트 3주제: 스페인 내전과 러시아 혁명		
감상 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1주제	하이든 <전쟁미사> <현악사중주 황제>, 베토벤 <영웅교향곡>	반 고흐 <파리의 7월14일>, 솔라 <바스티유 함락>, 다비드 <마라의 죽음>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성 베나드산을 넘는 나폴레옹 1801>,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2주제	힌데미트 <화가 마티스>	샤갈 <나와 마을>, 뒤샹 <샘>
	3주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2번 “10월 혁명에 바칩”> <교향곡 제5번 “혁명”>	피카소 <게르니카>, 샤갈 <혁명>
교수법제안	- 작품을 감상하기 전 각각의 사건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설명한다. - 자료를 통해 설명한 사건과 관계 깊은 미술작품과 음악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에 대해 설명한다. - 학생들과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토론한다.		

전쟁이나 혁명은 많은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 역사적 중요 사건이었으며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을 수업의 테마로 선정했다. 프랑스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은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이끄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전쟁 이후 힌데미트와 같은 예술가들은 망명을 선택했고 샤갈과 같은 예술가들은 떠난 조국을 그리워했다. 러시아의 혁명 또한 예술가의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을 남겼는데 샤갈의 혁명,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2번·제5번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은 허무와 불안, 슬픔 등의 감정의 변화를 낳았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다다이즘과 같은 새로운 사조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런 사조와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된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5>는 문학을 주제로 한 수업내용 중 ‘시, 예술과 함께하다’의 수업 설계이다.

<표 5> 문학을 주제로 한 수업 설계

강의주제	문학, 예술과 함께하다		
목적	음악·미술을 살펴보면 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나 사조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낭만시대를 여는 예술가곡과 17c 소설, 14c 서사시 등 서로 관련된 문학과 예술작품을 고찰하고 작품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주제: 예술가곡과 연가곡, 괴테, 하이네, 뮐러, 슈베르트, 슈만 2주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귀스타브 도레, 오노레 도미에 3주제: 차이콥스키와 단테의 <신곡>, 보슈		
감상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1주제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겨울나그네> <마왕> <송어>, 슈만<시인의사랑>	프리드리히 <안개바다위의 방랑자> <아침안개가 낀 노이브란텐부르크>
	2주제	슈트라우스 <돈키호테>	도레 <서재의 돈키호테>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 도미에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
	3주제	차이콥스키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쉐퍼 <프란체스카와 파올로>, 앵그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교수법제안	- 낭만주의 시대를 개관하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아름다운 예술가곡에 관해 설명한다. 괴테와 하이네의 시를 배경으로 연작의 형태인 연가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시를 공부한다. - 문학작품 <돈키호테>를 배경으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와 도레, 도미에의 그림들을 감상한다. -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를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에리 쉐퍼의 그림과 함께 감상한 뒤 토론한다.		

19세기를 통틀어 시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중요한 소재였다. 괴테와 뮐러, 하이네의 시를 배경으로 슈베르트와 슈만은 아름다운 연가곡을 작곡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의 작품 속, 사랑에 실패한 청년의 이미지는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위의 방랑자>라는 그림 속에 외로움과 공허로 존재한다. 문학 작품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해학적인 소설이다. 이 재미있는 소설을 배경으로 슈

트라우스의 교향시와 도레, 도미에의 미술작품이 탄생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에 등장하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금단의 사랑 이야기는 차이콥스키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문학과 연결된 여러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다음의<표 6>은 심리학을 주제로 한 학습내용 중 ‘심리학, 예술을 말하다’의 수업 설계이다.

<표 6> 심리학을 주제로 한 수업 설계

강의주제	심리학, 예술을 말하다.	
목적	예술을 관찰하는 심리학적 개념들을 설명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예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고 배경을 설명한다.	
학습내용	1주제: 예술 심리학 정의하기 2주제: 칸딘스키, 색채 심리학 3주제: 색을 통해 본 음악의 상징	
감상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스크리아빈 <프로메테우스>, 립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칸딘스키 <인상:음악회> <구성,1913> <노랑·빨강·파랑> <점·선·면>, 부케로 <일손을 멈춘 여인>, 에곤 쉴레 <은둔> <추기경과 수녀>, 말레비치 <검은원>, 젠틀레스키 <수태고지>, 엘그레코 <삼위일체>
교수법제안	- 예술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현대생활에서 음악·미술이 기능을 설명한다. - 색채 심리학과 그림에서 표현된 색의 상징성에 대해 고찰한다. - 색채를 표현한 음악을 듣고 토론한다.	

본 수업 설계는 예술심리학의 정의와 칸딘스키의 색채심리학, 음악에서의 색채를 학습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예술심리학에서 예술가와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조명(Winner, 2004)을 정의하고, 피테의 색채론에 의한 칸딘스키의 색채심리학적 작품과 이론을 공부한다. 칸딘스키의 색에 대한 주장은 관람자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바탕이며, 형태와 색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학적 표현인 것이다.(서해옥, 2009, p. 76) 이런 칸딘스키의 심리학적 표현은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내에서도 연관을 찾고 있다. 그의 작품 <인상: 음악회>에서 청각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림 안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으며 그의 다른 작품을 통해 색채론을 이해한다. 칸딘스키의 음악적 색채론은 동시대 작곡가인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25)³⁾과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색채에 대한 음악적 표현을 구현한 작품 <프로메테우스>를 감상하고 림스키 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1874-1951)⁴⁾의 관현악적 색채를 구현한 작품 <세헤라자데>와 비교하여 색에 대한 느낌을 토론한다.

<표 7>은 미학에 관한 수업 중 ‘아름다움을 찾아서’에 해당하는 수업 설계이다.

<표 7> 미학을 주제로 한 수업 설계

강의주제	아름다움을 찾아서		
목적	예술을 미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음악에서의 미학, 미술에서의 미학, 시대적으로 바뀐 미학의 의미 등 다양한 개념의 미를 탐구한다. 또한 각각의 음악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미학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주제: 아름다움에 대하여 2.주제: 고전 예술의 미학-비례와 균형, 원근법, 절대음악과 표제음악 3주제: 현대 미술의 미학-아방가르드		
감상 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1,2주제	페르골레시 <하녀마나님>, 브람스 <교향곡4번>, 리스트 <헝가리광시곡 제2번>	밀로 <비너스>, 보티첼리 <비너스> 뒤상 <L.H.O.O.Q1919>, 다빈치 <모나리자>, 보테로 <모나리자>, 다빈치 <인체도> <최후의 만찬>, 루벤스 <십자가를 세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3주제	쇤베르트 <달에 홀린 피에로> <정화된 밤>	베이컨 <쇠갈비에 둘러싸인 머리> <자화상>,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 <등나무의자가 있는 정물> <아코디언 연주자> <꿈>, 바스키아 <Beat Bop> <Untitled>, 백남준 <존 케이지에게 경의를> <살이 있는 조각을 위한 텔레비전 브라> <TV첼로>
교수법제안	- 예술미학에 관한 각종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개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설명한다. - 고전예술 속 비례와 균형, 원근법,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에 해당하는 준비된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다. - 현대예술에서 대변되는 급진적 예술을 살펴보고,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점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3) 스크리아빈은 청각적인 듣는 음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각적인 음악을 시도 하였다. 음악을 색채로 전환시켜 8계음을 12계음으로 발전시켰으며 음계를 색채로 표현하였다. 음악에 쓰이는 C는 빨간색으로 G는 오렌지 D는 노랑 그리고 F는 파랑색으로 나타내었으며 자신의 음악회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으로 보여 주었다.(서혜옥, 2009, p. 74)

4)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음을 색채적으로 파악하여 C장조, D장조, A장조, F장조 F#장조를 각각 백, 적, 장미색, 녹, 회색을 띠는 녹색으로 구분하였다.(삼호뮤직 편집부 편저, 2002)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 미학을 설명하고⁵⁾ ‘비너스’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각 예술가들의 미의 관점을 비교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보테로와 뒤샹의 모나리자가 주는 미학적 관점을 살펴본다. 고전예술에서 비례와 균형, 원근법을 주제로 각 미술 작품들을 분석해보고, 음악에서 아름다움의 논쟁이 되었던 페르글레스의 <하녀마나님>을 감상한다. 순수 기악음악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던 절대음악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과 표제음악으로 절대음악 작곡가들과 논쟁을 벌였던 리스트의 작품을 듣고 그들의 논쟁에 관해 이해한다.

또한, 20세기에 급진적으로 변한 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추상표현주의와 입체주의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해 고찰한다. 지하철의 낙서에서 예술로 인정받은 바스키아, 평면 위에 다면을 그려 넣은 피카소, 끄찍한 쇠갈비를 작품화한 베이컨, 12음 기법의 쇤베르크 등, 기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형식들이 과연 예술적 아름다움을 대변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논란의 쟁점이었던 작품들을 감상한다. 음악과 미술의 두 영역에서의 급진을 주도했던 백남준은 작곡가와 미술가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급진적 플럭서스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통해 아방가르드 음악·미술을 이해한다.

본 4개의 수업 설계는 각 영역별 주제로 강의, 감상, 참여의 3단계 강의 방법에 맞게 구성되었다. 참여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 적절히 배열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여러 가지 참여 형태 즉, 감상평쓰기, 주제에 맞는 시 쓰기,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조사발표하기, 동영상으로 만들어보기, 음악을 듣고 노래 가사 만들기 등 팀별 과제를 채택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표 8>은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의 강의에 따른 참여방법의 예이다. 한 차시 안에 관련된 예로써 팀별 수업 시 선택하도록 하거나 혹은 전체가 동일한 한 가지 방법을 골라 동시에 시행해 볼 수 있다.

5) 박이문 외, (2010) “‘미’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경험내용을 서술하는 하나의 범주이다. ‘미’는 자연 혹은 세상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인식대상, 즉 지적 발견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감각대상을 대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내용의 한 양상이다. 미학은 ‘아름다움’이라는 심리적 범주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철학적 성찰이다.”(pp. 16-18)

<표 8> 참여수업 방법의 예 -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강의 제목	참여 방법의 예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 혁명과 전쟁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얘기하도록 유도하며 작품을 감상하며 느꼈던 감정에 대해 토론한다. - 감상한 작품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각자 생각을 이야기 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 혁명과 전쟁에 대한 시를 써본다. - 주제에 맞게 제시된 음악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휴대폰이나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혁명과 전쟁을 테마로 하는 다른 작품을 조사 발표한다. - 혁명과 전쟁에 대해 조사한 여러 작품 감상 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 혁명과 전쟁에 대해 연극을 만들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발표한다. - 주어지는 음을 가지고 짧은 곡을 만들어 본다. - 주어진 짧은 노래에 주제에 관한 가사를 붙여본다.

위에서 제시한 예는 수업 내 참여시간에 시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다. 본 연구자의 교양 수업 중에 실시해 본 결과, 학생 대부분이 휴대폰이나 휴대용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간단한 조사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 검색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바로바로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첨단 사업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업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참여시간을 이끌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이해도와 참여에 관한 평가는 지필시험에 국한시키기보다 과제에 관한 이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의 이해를 높이는 수업의 목표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표 9>는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를 주제로 한 학습세안의 예이다. 대학 교양 3학점에 해당하는 150분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표 9> 역사를 주제로 한 학습세안의 예 -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단원명	혁명과 전쟁 속 예술이야기	1차시(150분)	학년 : 대학생
학습목표	혁명과 전쟁에 관련된 사건을 공부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자료	컴퓨터, 파워포인트자료, 동영상 자료, 빔 프로젝트		
학습단계	교수 활동		

도입 (5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혁명과 전쟁에 관해 설명하고 예술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예술가들은 혁명과 전쟁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남겼다. 본 강의에서 프랑스혁명과 1·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과 러시아혁명을 다룰 것임을 설명한다.
전개 I (35분)	1주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①프랑스혁명에 대해 설명한다. 1789년 7월부터 약10여년에 걸친 시민혁명으로 불합리한 신분제도로부터 벗어나 평등한 인권을 주장하였으며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종식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신분 제도는 성직자, 귀족, 평민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3신분인 평민들이 각종 세금을 떠맡고, 성직자와 귀족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루이16세가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삼부회를 소집하자 평민들은 불합리한 투표권에 맞서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공표하였다. 프랑스는 바스티유가 함락된 7월14일을 혁명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솔라는 <바스티유 함락>을 반 고흐는 <파리의 7월14일>이라는 작품을 남긴다. (6분) 혁명기의 작곡가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한다. (5분)  반 고흐 <파리의 7월14일>  다비드 <마라의 죽음> ②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게 된다. 혼돈의 시기에 같은 혁명가들 중에서도 뜻이 같지 않은 다른 당파의 언론인 장폴 마라가 암살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된 다비드의 작품<마라의 죽음>을 감상하고 설명한다. (5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의 역사적 의의와 1918년까지 공식행사에 사용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국가로 사용되었던 현악사중주 <황제> 2악장을 감상한다. (6분)

	③혁명을 종식시킨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나폴레옹의 생애에 대해 설명한다. 나폴레옹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인 다비드의 두 작품을 감상한다.<나폴레옹1세의 대관식> <성 버나드산을 넘는 나폴레옹 1801> (5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했으나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소식을 듣고 제목을 고친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을 감상한다. (5분) ④1830년 7월28일 부르봉왕가를 무너뜨린 3일간의 시민혁명을 소재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탄생했다.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 담긴 자유와 이성의 알레고리 파리안느를 설명한다. (3분)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전개 II (15분)	2주제: 1·2차 세계대전과 다다이즘, 파리파, 힌데미트 ①세계대전 직후 과거의 모든 예술형식과 가치를 부정하는 비합리성·반도덕·비심미적인 가치관 다다이즘이 태동하게 되었다. 다다이즘이 추구하는 예술과 미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가장 혁신적이고 논란이 되는 작품 뒤샹의 <샘>을 감상한다.(3분)  뒤샹 <샘>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에뷔테른> ②세계대전 후 프랑스 파리로 새로운 예술거점지역을 이룬 외국인 예술가 집단 파리파에 대해 설명한다. 파리파의 작가 모딜리아니와 샤갈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에뷔테른>의 모델이면서 부인인 에뷔테른에 관한 그들의 비극적 사랑을 설명한다. 또한, 파리파의

	화가 샤갈의 <나와 마을>을 감상하고 설명한다.(3분) ③2차 세계대전 전 나치즘의 소용돌이가 거세어 질 즈음 작곡가 힌데미트는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힌데미트의 생애와 작품의 경향을 설명하고 주요 작품의 하나인 <화가 마티스>를 감상한다.(9분)
전개Ⅲ (25분)	3주제: 스페인 내전과 러시아 혁명  피카소 <게르니카> ①스페인내전은 1936년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된 데 대하여 군부를 주축으로 하는 파시즘 진영이 일으킨 내란이다. 당시 스페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1937년 프랑코 정부가 바스크 지방의 중심지인 소도시 게르니카에 폭격을 감행하여 죄 없는 일반시민을 살상한 사건을 그린 문 제작,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한다.(8분) ②러시아 10월 혁명, 혹은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났다. 10월 혁명은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초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혁명이었다. 이 혁명의 역사적인 설명과 샤갈의 작품 <혁명>,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2번 “10월 혁명에 바칩”> <교향곡 제5번 “혁명”>을 감상한다.(17분)
참여 (35분)	강의시간 중에 다루어진 여러 혁명과 전쟁 중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사건에 대해 각자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시 찾아보고 조사한다. 다시 조사한 역사적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와 연관된 다른 미술이나 음악 작품을 찾아본다.
발표·토론(30분)	각자 조사한 사건과 작품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발표·토론은 조별로 진행한다. 각 학생이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새로 조사된 예술작품을 정리한다.
정리 (5분)	1. 각각의 사건을 종합하여 보고 새로 조사된 예술작품을 살펴본다. 2. 학생들의 질문에 답한다.
평가	1. 예술과 역사의 관계를 잘 이해했는가? 2.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의미를 이해했는가?

본 학습세안은 강의, 감상, 참여를 통해 실제 수업 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참여에 있어서 각자 주제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조별과제로 진행하여 조원끼리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강의의 내용을 재인식하고 강의 주체자로 참여하게 된다. 역사 속에 예술과 예술 속에 역사의 관계를 조명하여 통합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세안으로 구성하였다.

Ⅲ. 요약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 개정교육과정의 교육정책변화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대학의 현장에서도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여러 의미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요구와 더불어 예술 분야 교양과목 중 음악과 미술이라는 두 교과를 인문학의 시각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인문학의 범위 중 비교적 음악·미술과 가깝게 다루어졌던 역사, 문학, 심리학, 미학의 네 분야를 강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리고 14차시 강의계획과 분야별 수업설계, 한 차시 분 학습세안을 제시하였다. 1차시부터 5차시까지 토대분야가 되는 역사 영역을 두고 나머지는 응용분야로 나누었다. 1-4차시까지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의 대략적인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비교적 역사영역에서 예술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혁명과 전쟁을 주제로 한 차시 더 추가하였다. 나머지 응용분야는 3차시씩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분야와 음악·미술이 가장 적합하게 연계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수업은 강의, 감상, 참여의 3단계로 이루어져 강의를 통한 인문지식의 습득과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 참여를 통한 관심과 이해의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입시교육에 밀려 음악·미술의 접근이 미비했던 중등교육과정을 보낸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에 음악·미술 분야는 대학 교육 현장에 맞는 다양한 수업내용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양 교육이 담당해야 할 접근 방식의 시도로 구성된 수업 설계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획일적 지식 전달보다는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수업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음악·미술은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관심은 곧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가치관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박한 현대인에게 삶의 풍요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교과가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수업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12). 창의력 신장을 위한 음악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음악과 미술 통합 중점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승민 (2011). 음악, 미술의 통합교육을 통한 고등학교 현대음악 지도방안 연구: 표현주의 미술작품과 연계한 쇤베르크의 음악작품 감상 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미령 (2012). 음악과 미술의 통합수업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 10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영 (2013). 미술과 음악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부남 (2003). 중학교 미술과와 음악과의 교과 통합 프로그램 연구: 사조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우, 최종덕 (2009).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46, 11-42.
- 박구용 (2012).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미래. **범한철학**, 67, 337-361
- 박승익 (2007). 세계화와 인문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1(1), 91- 106.
- 박지숙, 김태우 (2006). 미술교육에서 음악교과와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 바실리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7, 215-227.
- 박현아 (2009). 음악-미술 교과의 통합교육적 지도방안 연구: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혜옥 (2009). 칸딘스키의 색채론: 내적 필연성의 심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3(1), 69-80.
- 송유진 (2011).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교육철학**, 43, 131-160.

- 오지향, 김선미 (2009). 통합적 접근에 의한 대학 교양음악수업 지도방안연구. **음악교육연구**, 36, 167-203.
- 윤주희 (2011). 예술과 통합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지향방안 연구: “몸으로 배우는 예술통합 교양과목” 체험뮤지컬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장지원 (2012).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0, 183-197.
- 정진원 (2008).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34, 139-169.
- 최보람 (2011). 음악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교육방안 연구: 고등학교 수준의 미술. 사회교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소희 (2002). 대학교양음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정 (2011). 인상주의 음악의 미술교과 연계에 따른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수진 (2013). 미술교과를 통한 서양음악사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이문 외 (2010). **미술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pp.16-18. 서울: 미술문화.
- 삼호뮤직 편집부 편저 (2002).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 Winner, E. (2004), **예술심리학**. 이모영, 이재준 역. 서울: 학지사.

ABSTRACT

Study on Liberal Arts in University through connection of Music and Fine Art

Oh, Yoo-J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iberal arts of university through the connection of music and fine art, and suggest the teaching method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s and interests for music and fine art. Therefore, the practical teaching details for liberal arts of music and fine art actually implemented in university are suggested in order for them to be used in classes. According to demand for changes of new liberal arts in the 21st century, the integrative approach among subjects or systems is currently discussed. Based on this fact, the connection of music and fine art both of which are traditional arts curriculum are recognized as main one and themes are selected from humanistic view. During one semester, a total of 14 sessions of 4 disciplines are suggested: history, literature, psychology, aesthetics, and in humanities. In addition, the class details of each 4 disciplines are suggested by one session in order for them to be used in actual classes.

Key words : Music, Fine Art, Liberal Arts in University, Lesson Plan

투고일: 2013년 8월 30일, 심사(수정): 10월 3일(11월 9일), 게재확정일: 11월 8일